

# 담배는 '만병의 근원'... 폐암 98%·간암 57%가 흡연 탓

### 건보, 국내 다발 암종 발생·기여 위험도 10년 추적 관찰

30년 이상·하루 1갑 20년 흡연, 소세포폐암 발병 55배↑  
흡연·폐암 인과성 명백... 위암 50%·대장암 28% 유발도

장기간 담배를 피우면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98.2%, 간암에 기여하는 정도는 57.2%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국내 발생률 상위 주요 암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유전위험점수(PRS)가 동일 수준인 사람에서 흡연으로 인한 암 발생 위험도와 기여위험도를 암종별로 비교 분석해 11일 발표했다.

연구는 건강보험연구원과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2004-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유전위험점수 자료, 중앙암등록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를 연계해 2020년까지 추적 관찰해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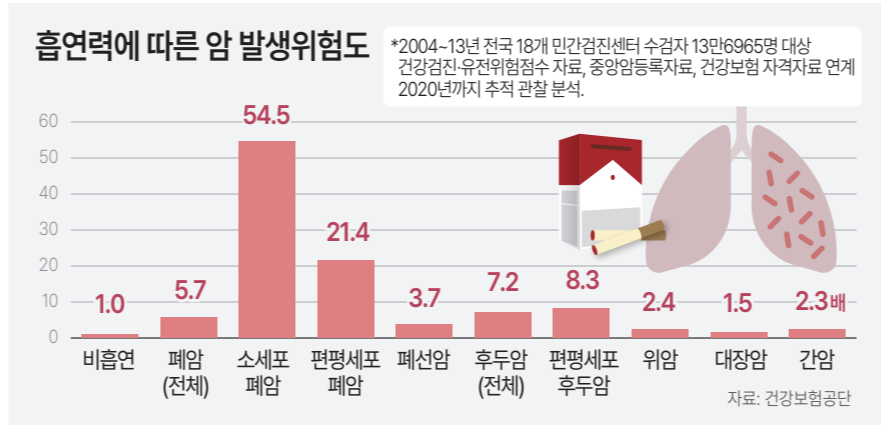
암 발생위험도 분석 결과 흡연은 다른 암들에 비해 소세포폐암과 편평세포폐암 등 폐암의 발생 위험을 크게 높였다. 연구진은 일반적인 생활 환경, 소득 수준, 성별,

연령, 음주 여부 등을 동일 수준으로 맞추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를 비교했다.

30년 이상·20갑년(하루 1갑씩 20년간 흡연) 이상 현재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는 △소세포폐암 54.5배 △편평세포폐암 21.4배 △편평세포후두암 8.3배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암은 2.4배 △간암 2.3배 △대장암은 1.5배 등으로 폐암에 비해 흡연으로 인한 발생위험도가 낮았다.

암 발생 기여위험도 분석에서는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현재흡연자에서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9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여위험도란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집단에서 발생한 질병 중에서 그 위험요인이 직접적으로 기여한 비율을 뜻한다.

즉 분석대상 집단에 소세포폐암 환자 100명이 있다면 그중 약 98명은 흡연을 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 기여위험도는 편평세포후두암 88.0%, 편평세포폐암 86.2%로 나타났다.



흡연이 △대장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28.6% △위암 50.8% △간암 57.2%였다. 이 암들은 흡연 이외에도 많은 원인이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유전요인이 편평세포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0.4%로 극히 낮은 반면 △대장암은 7.3% △위암은 5.1%로 유전요인의 영향이 편평세포폐암보다 각각 18.3배 12.8배 크게 나타났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연구 결과 폐암·후두암은 여타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요인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며 "이로써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공단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

배 소수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국내 유병률 상위 암종으로까지 확대, 비교를 통해 폐암·후두암 발생에서 흡연의 높은 기여정도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국내의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른바 '담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세포폐암·편평세포폐암·편평세포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2003~12년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 약 533억 원을 담배회사들이 배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재판부에 150만 명의 지지서명을 제출했다.

허승아 기자heosa@skyedaily.com

## 임신중독증, 조기 진단·관리 중요

### 증상없이 임신 20주부터 발생 혈압·단백뇨 정기 모니터링 필요 고위험군 아스피린 예방 고려

임신이란 기쁨과 설렘의 시간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여정 속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환이 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엄마와 태아 모두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임신중독증이다.

임신중독증은 임신 중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산모와 태아의 사망을 유발하는 주요 임신합병증 중 하나로 보통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한다.

전체 임신부의 약 4~8%에서 나타나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뚜렷한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증상이 감지될 무렵이면 이미 질환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진단은 혈압 측정과 단백질이 기본이며 질환이 악화될 때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단백질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중증의 임신중독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 임신 중 고혈압이 진단되었을 경우에

는 수시로 혈압 측정을 하며 변화 추이를 파악해야 한다.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간 기능·콩팥 기능, 혈소판 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임신중독증 악화로 인한 장기 부전 여부도 관찰해야 한다.

현재까지 임신중독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고령·비만·만성 고혈압, 현성 당뇨, 신장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거나 과거 임신중독증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임신 16주 이전부터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시작하는 것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고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통해 혈압·단백뇨 등 증상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바탕으로 식이 조절,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송관용 고려대안산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중독증은 임신에서 기인한 질환으로 최선의 치료법은 출산이다"며 "임신 주수에 따라 산모의 혈압을 조절하고 태아의 성장 상태를 관찰하면서 적정 분만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승아 기자heosa@skyedaily.com

## HK이노엔 비원츠, 스틱형 선키어 제품 출시

HK이노엔 슬로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 비원츠가 선스틱(Sun Stick)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비원츠 스킨핏 에센스 세뽀 컨트롤 선스틱(스틱)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틱형 선키어 제품이다. 유분을 케어하는 실리카 파우더를 함유해 보습감을 줄 수 있다. SPF50+ PA++++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력을 가진 저자극 무기자차 제형으로 민감한 피

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스틱 신제품은 번들거림 없이 산뜻하게 밀착돼 무더운 여름철 사용에 최적화됐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즉각적인 피지 분비율이 81.29% 개선됐다. 사우나 후에도 98.64%의 제품 지속력을 보여 땀 방지 기능까지 입증했다.

비원츠는 2030세대를 위한 슬로에이징 스킨케어 브랜드로 선키어를 비롯해 아이케어, 기미·잡티케어, 스킨케어 등 다양한 라인을 선보이고 있다.



허승아 기자heosa@skyedaily.com

## 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마약류 지정... 철통 관리

### 식약처, 관련 법률 개정안 공포 수입~투약 순과정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과 제68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을 포함한 총 7종을 마약류로 새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항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유엔이 지정한 마약 4종과 항정신성의약품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 등이 포함됐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2020

구분	규정	물질명
마약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2호 마약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나타렌 엔-피롤리디노 메로니타렌 에토나타제피프네 엔-데스에틸 이소토나타렌
	항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4호 나목 해당 제외
	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3호 라목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 에토미데이트 렘보렉산트

년부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돼 관리돼 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하거나 오남용 사례가 지속돼 마약류 지정이 결정됐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는 아직

해당 성분을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았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보고 의무가 부과돼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불법 유통과 투약에 대한 조사와 단속

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업체와 협의해 의료현장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함께 지정된 렘보렉산트는 불면증 치료제, 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은 대마 성분의 변형 화합물로 환각 유발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지정된 마약 4종에는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나타렌 등 신종 합성 오피오이드가 포함돼 있다.

에토미데이트의 마약류 지정 효력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마약류 불법 유통과 남용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경훈 기자ju@skyedaily.com

#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 혁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쿠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

북앤피플 (02-2277-0220)